



5년 내 1조원 규모로 성장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

지난 92년도 처음 국내에 도입돼 활성화된지 약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ESCO사업은 도입 초기에 비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ESCO시장은 현재 약 2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ESCO시장의 발전은 각 업체들의 활발한 수주 활동이 제 역할을 해낸데 따른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른 활약이 현재 ESCO시장을 이룬 발판이 됐다. 특히 ESCO시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ESCO협회(회장 유제인)도 업체들의 활발한 활동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견 ESCO사의 대표이면서 ESCO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범용 부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_ 오혜은 기자 (hi9187@hanmail.net)

ESCO협회 이범용 부회장의 ESCO시장에 대한 시각은 특별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일반 세일즈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매출이 100억 원이면 에너지를 100억 원만큼 덜 수입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ESCO시장은 큰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ESCO사업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어 이범용 부회장의 이 같은 말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ESCO시장은 2500억 원 내외 규모로 시장 규모나 기술영역이 많이 확장,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ESCO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사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왔습니다. ESCO시장은 앞으로 5년 이내에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범용 부회장은 향후 ESCO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이범용 부회장이 말하는 1조원 시대는 꿈같은 말이 아니다. 그는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ESCO 활성화 방안으로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ESCO에 파이낸스를 접목해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융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한 고객 발굴과 관리는 물론이고 사업영역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을 위한 각사들의 신용관리제도가 중요합니다.”

향후 ESCO에 대한 정부 지원자금이 중단될 경우 자체 자금이나 민간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산자부로 부터 민간자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용역이 발주된 바 있다.

이범용 부회장은 민간자금 활성화를 위해 작은 프로젝트들을 각 업체들이 수행하는 것보다 대형 프로젝트를 각 ESCO마다의 특장점을 살려 공동으로 수주하거나 한 업체의 신용으로 부족할 경우 2~3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행하는 방안 등을 내놴다. 또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를 넘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등 해외로 진출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용 부회장은 ESCO협회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까지 ESCO협회는 회원사도 미미했고 재정적으

로도 부족했습니다. 협회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회원사가 늘고 있어 위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은 협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 회원사들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공제사업도, 보증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원사들이 협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른 분담금 지출로 협회를 키워야 합니다.” 그동안 등록된 ESCO업체수에 비해 ESCO협회 등록 회원사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범용 부회장은 “앞으로 ESCO협회도 회원사들에게 취할 것은 취하고 앞으로 나서서 할 일은 찾아 나설 것”이라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애정을 갖고 지키고 키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용 부회장은 올해 초 유제인 회장과 함께 일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ESCO 포럼’에 참석해 신선한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일본은 ESCO 비즈니스 모델을 플랜트 수출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있다.

“잉여자금이 많은 일본은 저개발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즉 세계은행이라든지 ADB 등의 자금과 ESCO업체들의 기술을 합쳐 동남아 국가의 공장이나 낙후된 발전소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수출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확보 등과 연계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ESCO협회가 할 일이 그만큼 많습니다.”

이 부회장은 ESCO협회가 향후 ESCO시장의 나갈 방향을 잡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용 부회장은 각 ESCO업체에 독립적이고 의존적이지 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국가에너지 절감을 위해 ESCO를 활성화시키려고 지원하는 정책에 업계가 부응하면 정부는 정부대로 기준을 유지하면서 ESCO사업이 더욱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업계는 업계대로 더욱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사람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투자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정책과 업계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는 뜻으로 임혀진다. 또한, 좋은 제도와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자는 말로도 들린다.

이범용 부회장의 말 속에 ESCO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다. e